

# 진로 탐색 기회 관심 '폭발'

## 공공기관 직무인턴 모집에 대학생 1000여명 신청

전북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선발위원회를 개최해 100명의 대학생을 선발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도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공 관련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전북 대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16~31일 참여자를 모집했다. 본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참가한 청년들의 만족도뿐 아니라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습기관 알선 및 실습비 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개월(100명)에서 올해 2개월 2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인턴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 최종 직무인턴 대상자를 추후 공고할 예정이며, 전공 관련 공공기관 실무부서에 배치하여 7월 1일~ 8월 31일까

지 (2개월간)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계획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의 근무요령과 멘토의 역할 등에 대한 사전교육(OT)을 실시(6월)하여 직무인턴에 참가하는 청년과 공공기관 멘토들의 대학생 직무인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청년 취업을 위해 도에서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직무경험이 청년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차관급 인사 임명장 전수하는 이낙연 총리.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국립대학 총장 등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 자타공인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의 보고로 자리매김

## 전북도,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총 101건으로 전국 최대

전북도는 전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장(도 무형 제65호)과 익산성당포구농악(도 무형 제7-7호) 2건을 새로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한일 선생과 사단법인 익산성당포구농악보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자와 보유단체로 각기 인정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성당포구농악보존회)은 전라북도 내 육지방과 해안 지방의 농악이 혼재된 포구 농악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성과 역사성은 물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노력한 점이 크게 인정받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계승을 위한 보유단체로 사단법인 익산성당포구농악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이다. 박계호 선생은 아버지인 박인권 선생의 영향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자장 종목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월의누', '조선명탈정', '도리화가', '사도', '별이 김신달' 등 각종 영화나 드라마 협찬을 통해 노력했으며,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 합죽선을 선물하고, 고궁 박물관에서 합죽선 제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장단 종목의 보유자로 조용안 선생을 인정하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종목의 보유자로 박계호 선생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장단(교법) 보유자로 인정된 조용안 선생은 전계문, 권재남, 송영주로 이어지는 전수계보를 잇고 있으며, 전국교수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총101건(국 10, 도 91)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지정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5호 야장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 김한일 선생은 해당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20년 이상 경력의 대장장이에게 주어지는 노동부 지정 대한민국 전통기능 전수자로 지정된 바 있다.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선자장(합죽선) 보유자로 인정된 박계호 선생은 2대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 선친인 박인권 선생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합죽선) 종목의 보유자였으며, 현재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활동 중

전북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훌륭히 보전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의 전승활동비 확대 지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 추진, 다양한 무형문화재 홍보 및 판로개척,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야장 종목의 지정은 70~80년대 전주지역에 50곳 이상의 야장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일대장간 1곳만이 전통방식의 제작과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시급히 보호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 익산성당포구농악(보유단체 사단법인 익산

전북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훌륭히 보전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의 전승활동비 확대 지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 추진, 다양한 무형문화재 홍보 및 판로개척,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주교대 황학당 리모델링 사업 완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노후된 황학당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황학당은 준공된 지 28년이 된 건물로 내·외부 뿐만 아니라 음향설비,

조명, 무대 장치 및 의자 등이 노후로 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8억여원을 들여 2017년 설계, 2018~19년 2년간의 공사로 5월말에 완공됐다. /장은성 기자

황학당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08㎡ 규모에 좌석수 470석을 확보했고, 주요 시설로는 강당과 세미나실 2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트홀, 직원 휴게공간 2실, 그리고 강연과 공연을 위한 강사대기실, 분장실 2실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 LX, 에티오피아에 국내 토지정보기술 전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선진토지정보기술 전수했다. LX는 지난 3일부터 닷새간 에티오피아 도시개발부 테이저 게브리자아베 베리(Tazer Gebregzabher Berha)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국내 토지행정과 기술에 대한 현장견학과 함께 현장 견학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서울소재 LX글로벌센터에서 한국의 토지정보시스템과 드론(UAV)을 활용한 토지등록 방법 등 국내 토지정보기술 현황을 공유했다.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시 영통구청, LX 국토정보교육원, 국토발전전시관 등을 방문해 국내 토지행정과 기술에 대한 현장견학과 함께 현장 견학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창학사장은 "에티오피아는 오래전

부터 LX와 인연을 맺고 토지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라며 "이번 초청연수가 향후 관련 사업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2016년에 에티오피아 도시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정보교류,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토교통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국가표준 통합 토지데이터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MP)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 공공기관 변화와 쇄신의 힘찬 발걸음!

### 도, 공기업 · 출연기관 경영쇄신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산하 공기업 · 출연기관의 경영쇄신방안 보고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은 늘 추구되는 시대정신으로 삶이 변화하듯이 공적영역에서도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능동적인 대처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날 15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이 직접, 기관중점사업 추진상황과 조직운영관련 기관의 문제점 진단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경영쇄신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경영 실천선언'을 실시했다.

또한, 경영쇄신을 위한 다양한 주제 가운데,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채용과 인권경영, 안전사고관리 예방을 더욱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기관별 자구노력에 따른 경영쇄신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활용과 다양한 쇄신주제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